

2023 FALL 가을

한울타리

Contents/ 목차

권두언	2
예배예술위원회	3
신임제직을 위한 권면의 글	4
신임 제직 답사	5
홍보 위원회/역사편찬 위원회	7
보스톤한인교회 7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를 보고	8
교인2부 위원회-2023 전교인 여름수양회 보고	9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와서 1 -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10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와서 2 - ‘전교인 수양회를 통한 은혜’	12
건물 관리 위원회	13
EM/BM Worship Service	14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15
해바라기 유초등부 주일학교	16
신임 전도사의 신앙여정 1	17
Ransom 중고등부	18
신임 전도사의 신앙여정 2	19
청년 1부	21
청년 2부	22
부부청년부	23
구역소개 시리즈 두번째 -중서 3구역	24
칭찬합니다	25
마리아 여성회	26
집사회	27
선교지에서 온 편지1 - 이집트	28
선교지에서 온 편지 2 - 칠레	30
선교사와의 만남 보고 - 과테말라 김도언 선교사	33
권사회	34
상록기도회	35
은퇴 장로 기도회 (은.장.회)	36
한국문화 축제	37
KCB 교우 소개코너 - 방경남 장로/김향인 집사 가정	38
교우 동정	39
옛교우 동정: 뉴저지에서 보내 온 소식	41
편집후기 & 교회 행사 및 모임 안내	42

가을에 만나는 봄



자주 저희집 뒷마당에 피는 나팔꽃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봄에 싹이 많이 나왔고 여름기간 열심히 피었습니다. 아침에 활짝 핀 모습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 이름은 Morning Glory입니다.

한편 이름처럼 아침이 지나 낮이 되면 이미 글로리는 사라집니다. 영광의 흔적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푹푹 시들어갑니다. 애써 시들어가는 꽃들도 바라봅니다. 시들은 꽃들은 봄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가을이 되어 첫 서리가 내리면 더 이상 나팔꽃은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봄을 기다리게 하려고.... 어느덧 가을은 봄을 기다리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외치며 시작되었던 70주년도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워졌습니다. 활짝 피워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활짝 피웠던 아름다운 행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교우님들을 통해서 오고가는 세대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압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예배예술위원회에서는 건물위원회와 함께 8월에 그동안 현저히 저하된 화질과 연결성에 자주 문제를 일으킨 본당의 스크린을 대형 LED TV (98 inches) 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대, 찬양팀, 슬라이드/방송팀, 통역팀, 예배위원들,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주일 1, 2부 예배와 토요 아침기도회: 계속해서 매주 1, 2 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6일 2부예배는 상록기도회 헌신예배로 드렸고, 8월 13일 주일은 광복절 기념예배, 그리고 8월 20일은 전교인 여름 수양회로 본당에서의 1, 2부예배와 함께 필그림 수양관에서도 주일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오전8시에 본당에서 아침기도회를 가지고 지역사회, 교회, 개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 본당 전방과 후방의 스크린 교체: 건물위원회와 함께 본당 전방과 후방의 스크린을 대형LED TV (98 inches) 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8월4일에 대형LED TV설치를 위해 엄재관 장로, 이정규 장로, 장양술 장로, 배광현 집사, 부지형 (John Bu) 교우, 박신영 장로가 수고를 했습니다. 또한 Ethernet cable 과 optical HDMI cable 설치를 위해 배광현 집사, 최학수 집사, 박신영 장로가 수고를 했습니다.

3. 제직임직식: 9월 17일 2부예배는 제직임직예배로 드려졌고, 7명의 신임제직 (6명의 안수집사, 1명의 권사)이 임직을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에스더 여선교회가 주관하고 각 구역모임에서 준비한 오찬을 전교인이 함께 나누며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 방송팀 설비교체: 오래된 방송실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신임제직을 위한 권면의 말씀

Rev John Sweet

Senior Pastor,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Brookline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4~15)

보스톤한인교회 신임 제직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제직으로 직분을 받아, 주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섬기고,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드려야하는 일입니다. 부담스러움에 짓눌리기보단 스스로 격려하며 용기를 얻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을 통해 교회에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라는 직함을 갖게 되셨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우들에게 조언을 건넬 때, 또 그분들을 물질적으로/노동으로 도와줄때, 여러가지 사명을 이루어나갈 때, 자비로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구렁텅이에서 잡아 이끌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섬김을 위한 талан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가진 그 талан트를 통해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안수를 주고 임직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가 테스트한 시험을 치루셨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뿌리내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깊고 넓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고 말씀에 의지한 삶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람을 존경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십시오. 다른 이들을 진심을 다해 섬기고, 성장시키고, 나누며,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리더가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주원 신임 안수집사



안녕하십니까?

부부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제 기억 속에 안수 집사님들은 주일 일찍 오셔서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아저씨들이었는데요. 제가 그 아저씨가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추천을 처음 받았을 때 부부 청년부의 어떤 집사님께서 안수집사는 다 하는 거라고 말씀 하셔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하기로 결심을 했었는데요. 이번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 부부 청년부는 저밖에 없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와 함께 포스트닥으로 보스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스턴한인교회도 집에서 가까웠던 이유로 오게 되었구요. 처음에는 이곳 저곳 알아보고

교회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당시 부부청년부 분들께서 오자마자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웃이며 뭐 여러가지를 챙겨 주셔서 보스턴한인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닥을 마치면 보스턴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게 될 줄 알았고 그러길 또 내심 바랐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가족을 이 곳 보스턴에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떠날 곳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교회에 정 붙이기가 참 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부부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부청년부에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나이는 많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고 외삼촌들, 이모부님들을 비롯하여 집안에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가족 모임때 식사 기도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데 이제 저도 안수집사가 되었으니 한 10년 안에 열심히 해서 가족 모임때 식사 기도 한번 짚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제가 스무 살 때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부산 지역에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 열 분 정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임을 따라 간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70세 조금 넘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작은 방에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손잡고 찬송을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요 며칠 안수집사 답사를 준비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가서 당연히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안수집사로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제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도로 응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안수집사가 참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적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부터 안수집사 교육시간에 육아를 도맡아 해준 아내 이은미 집사와 바쁘신 가운데 약 6개월 간 교육을 준비해주신 이영길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로 임직받은 주풍실입니다. 저는 대학시절 대학선배의 인도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은혜로 삶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통찰력과 명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성경공부를 하였고, 우리 삶에 반영하며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도록 조금씩 인도받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서로 존중, 개방으로 하루하루 회개와 용서를 허락하시고 협력관계를 위해 양육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긍휼, 자비, 온유, 인내의 옷을 주셔서 불안감 대신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의 건강함과 의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받아들이도록 반복되는 훈련으로 배움과 은혜 안에 있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많은 것을 누렸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며 임직식에 임합니다. 구원 받은 후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 건강은 성령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며 그 성령님께서 제가 권사로 섬기는 동안에도 늘 저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돈 신임 안수집사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안수 집사로 제직하게된 김영돈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집사로 안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유년시기에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교회 주변을 맴돌기만 했을 뿐, 신앙없는 크리스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속세에 폭 빠져 살다가 2-3주에 한 번쯤 교회 가고, 그것도 설교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약 10년 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업 정리로 직업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 만만했는데 몇 개월 쉬게 되니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때, 다니던 회사에서 보스턴에 있는 포지션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만해졌죠. 그리고 미국 생활이 시작된 며칠 지나지 않아, 진정한 광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을 피할 곳도 방어할 무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옥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한번도 교회에서 봉사를 한 적이 없던 제가 방송실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배의 설교 말씀 한 줄 한 줄, 찬송가 한 줄 한 줄, 기도 한 줄 한 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그 저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감히 제가 제직을 맡을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고, 주신 제직을 소중히 받들려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육을 해주신 이영길 목사님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교제를 했던 훌륭한 다섯 분의 집사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그 길을 충실히,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4 Calendar order (August, 2023)

2023년 새해를 맞이했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홍보위원회에서는 여름의 끝자락이 되면 늘 루틴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년도 달력 주문입니다. 지난 8월에 2024년 달력 주문을 마쳤습니다. 지난 해 탁상용 달력 선호도가 높았다는 제보에 힘입어 올해는 벽걸이용 200개, 탁상용 250개를 주문하였습니다. 2023년 달력의 수가 부족했다는 평이 있어 부수도 작년에 비해 많이 주문한 상태입니다. 2024년 달력은 12월부터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 받으시는 교우님들 한 분도 없이 다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전교인 수양회 홍보물 및 프로그램 제작 참여 (June-August, 2023: 교인 2부 위원회에서 협조)

전교인 수양회 포스터 (백 현 교우), 프로그램 책자 (윤경문 목사) 표지 디자인 (배광현 집사)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였습니다. 특히 일당백으로 수고해주신 윤경문 목사님과 배광현 집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3. 미주한인교회 120주년 역사책 영문판 관련 번역 협조 (September, 2023)

KCMUSA에서 1년여 전 발간된 미주 한인교회 역사책을 영문판으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셔서 저희 교회사가 있는 부분의 번역 협조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열심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4. 교회 뉴스레터 “한울타리” 가을호 발간 (10.2023; 100부 프린트)

지금 읽고 계신 한울타리 가을호를 엮어내기 위해 7월 여름호가 나온 그 주일부터 홍보위원회 분들이 동분서주하여 가을호에 실을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왔습니다. 장로님들이 수장이신 각 위원회들의 보고서는 물론이고, 3세대 교인가정 소개, 구역소개, 70주년 사진전 감상문, 옛교우 동정, 선교지에서 온 편지, 수양회 후기, 편집 후기 (편집위원 한풀이 섹션) 등등 다양한 교회/교우분들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앞으로도 읽을거리가 풍성한 교회 뉴스레터로서의 한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5. 이벤트, 부서/구역 홍보

필요한 부서께서는 홍보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공조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위원회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 (사진기자, 영상기자, 편집자 등)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 7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를 보고

유창재 집사 (유진선 집사 父)

먼저 보스톤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토록, 그리고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사진전시회를 볼 수 있게 허락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잊기 쉬운 외국 선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기독교 전도 역사를 담은 사진들은 후대들의 교육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된 바탕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1800년대 말~1900년대 초 구한말 무속과 수탈에 찌들었던 백성을 구하려 고군분투했던 선조들, 지도상에 찾을 수도 없었던 조선반도에 와서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오로지 사랑으로 전도에 진력했던 미국의 전도사들이 있었다 할 것이다. 우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잊혀지기 쉬운 이 시기에 70주년 기념사진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더욱 반가웠던 일은 그 사진 중 “국한문혼용 신약전서”가 눈에 띄었는데 이 신약전서가 나의 증조부의 막내 동생 되시는 유성준 장로께서 1910년 발간하신 성경이기 때문이다.



유장로께서는 옥중에 이승만 박사로부터 전도를 받아 기독교에 몸을 담으셨고 일생을 전도와 교육에 힘쓰셨다. 1900년대 초에는 이미 한글번역 성경이 존재했었으나 순한글은 당시의 시대상황이 식자층은 한자이외엔 해득이 안되었고 평민들은 한자가 해득이 되지 않는 터라 이러한 답답한 실정의 벽을 넘기 위해 국한문 혼용을 발간하신 것이었고 이 성경은 고종에게 헌상되기도 했다. 유장로님은 1909년에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를 설립하셨다. 아울러 유성준 장로의 형님은 우리나라 개화기의 주역인 유길준 선생으로서 보스톤 대학에 국비로 유학하신 최초의 유학생이시기도 하다.

이 뜻깊은 사진전을 주관하신 이영길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號齋 俞星濬(공재 유성준)장로
(1880, 10, 21 - 1934, 2, 27)

대한제국 관리
농상공부 회계국장, 내각 법제국장
유배 중 기독교 입교
안동교회 설립인 중 1인
보성전문(고려대) 2대 교장
강원도지사, 충남도지사
최초의 국 한문 혼용성경
저서: 법학통론

개인적으로는 마침 안동교회 담임목사이신 황영태 목사님께서 보스톤에서 안식년 휴가중이신데 따님과 나의 딸도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지난주에는 황영태 담임목사님과 함께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드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023년도 전교인 여름수양회가 뉴저지 찬양교회 노승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8월18일 (금요일) 부터 8월20일 (주일)까지 2박3일 동안 New Hampshire의 Pilgrim Pines Camp and Retreat Center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전교인 여름수양회라 곳곳에서(?) 많은 염려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경탄하며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기에 바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 이민 1.5세인 강사 목사님 본인의 삶이 묻어 있는 이민자 이야기, 이민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양육 이야기, 이민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비전에 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풀어주신 여섯 번의 주제 강연/설교!
-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교우들과 한 조에 편성되어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던 세 번의 조모임!
-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만을 높이며 묵념아 찬양하던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
-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보낸 여유롭고 즐거운 자유시간!
- 영의 양식 못지 않게 중요한 ‘남이 해주는’ 여섯 번의 맛난 식사!
- 그리고 문만 열고 나오면 펼쳐진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은혜를 좀 더 많은 교우님들과 함께 누리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쉬웠던 2023년도 전교인 여름 수양회였습니다. 특별히, 일손이 모자란 자리마다 기쁨으로 섬겨주셨던 집사회와 여성회, 그리고 청년1,2부 회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양회 사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hekoreanchurchofboston.smugmug.com/2023-KCB-Pictures/2023-08-20-전교인수양회/2023-retreat/>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와서 1 -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박신영 장로

여름수양회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박신영 장로, 권복태 장로, 이경자 권사)

말씀에 대한 별 기대없이 그저 며칠 쉴 생각에 떠났던 여름수양회에서 노승환 목사님의 ‘내 사랑 이민교회’ 주제강의를 통해 뜻밖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교우들과 나누고자 메모와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지만, 그 많은 내용을 이 짧은 요약에 다 담을 수 없기에 빠진 내용이 많고, 또 희미한 기억이 오류를 만들 수 있음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받은 은혜를 되새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회예배의 말씀 제목은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창29:16-25; 표준새번역) 였고, 강사 목사님의 요즘 세대의 표현으로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이었다. 야곱이 7년간의 종살이를 하며 그토록 원했던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확인한 혼인 첫날 아침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먼 훗날 야곱의 인생에서 레아는 유다를 낳아 다윗을 거쳐 메시아를 얻게되는 축복의 통로였고, 야곱도 임종시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장지에 묻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배필이었다. 노승환 목사님은 중학교때 아버지를 따라 이민와서 불법체류자로 살았고, 흑인동네에서 잡화상을 하는 부모님의 장사를 돕기위해 고등학교까지 휴학하고 치열한 생존전쟁 속에서 살았고, ‘스팸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셨다.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노승환 목사님은 이민자로 살면서 많은 순간 눈을 떠보니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만나는 경험을 하며 왜 자신이 여기에 살고 있는지 반문하셨다고 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으로 올 때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른 현실에 자주 실망과 당혹감을 경험하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욕심인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레아를 통해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들으며,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라는 현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라는 이민자의 삶에 대한 좋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기도회에서는 창세기1장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을 신학적 관점으로 설명하셨다. 천지만물의 틀을 먼저 짜고, 그 내용물을 틀에 채우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채우심으로 창조의 절정을 이루셨다. 모세오경의 첫 책은 천지창조의 핵심이고, 목적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셨음을 기록했다.

주제강의 2 (토 오전) ‘너 주변 사람아’ (히13:12-13)에서는 미국사회에서 주변인인 이민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여러 모델로 설명하셨다. ‘In-Between model’ (두 문화에 끼어 어느쪽도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위치를 설명; 따라서 ‘낮은 자존감’의 위험성을 가진 이민자들, 특히 우리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칫 정체성의 위기와 함께 낮은 자존감의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다룸) 에서, ‘In-Both model’ (이제는 동화보다 조화를 중시하는 트렌드와 함께 두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그러나 자칫 고지론과 같이 우월적 힘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 위험이 있음), 그리고 ‘In-Beyond model’ (In-Between & In-Both; 앞의 두모델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주변인의 위치를 오히려 창조적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접근)로 설명하셨다.

바로 이 ‘In-Beyond’ model’의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섬기는 자로 오신 주변인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중심이 되었으며, 우리가 추구할 모델이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주변인이셨으나,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시는 창조적 중심으로 사셨고, 그를 따름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서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노 목사님은 G2G와 KODIA라는 단체를 소개하시면 2세대 양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평신도 사역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다. (강사 노승환 목사님, 뉴저지 찬양교회)



주제강의 3 (토 저녁)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요17:18)에서는 이민교회와 이민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 다루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둘째로 ‘세상 가치관, 혹은 세속적 정신’의 뜻으로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쓰일 때가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 가치관/세속적 정신은 사랑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받는 도전 중의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인데, 그것은 교인들이 교회활동/신앙활동 (구제, 기도, 금식 등)을 ‘사람에게 보이려고’한다는 데 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세속적 욕망을 교회 안에서 채우려는 일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위험에 빠뜨린다. 반면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세상 영역의 비세속화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섬기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비세속화, 즉 거룩하게 된다. 요17:18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는 흔히 보는 교회의 표어가 자칫 ‘2nd class 성도’로 성도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민하시며, 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는 제목을 뽑으셨다고 한다. 보냄을 받은 자 (apostle)는 선교사와 같은 개념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나 삶의 현장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을 비세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삶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으로 가든지 하라**’라고 표어를 삼자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세상’에 관련된 전치사 (in, out of, of, into)로 기독교 신앙관 (격리주의, 적응주의, 구획주의, 변혁주의)에 대해 정리한 송인규 목사님의 표를 살피면서, **세상을 변혁하는 신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주일 아침기도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삿 2:6-10)에서는 여호수아 11:21-23 ‘... 약간 남았더라’ 내용을 중심으로 존 헌터 목사님의 ‘Joshua, incomplete obedience’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위대한 상승장군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작은 불순종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의 장소 (삿16:1)’, ‘멸시의 장소 (삼17:4)’, 그리고 ‘수치의 장소 (삼5:1)’가 되어 돌아왔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기적과 가나안 전쟁을 체험한 1.5세대가 모두 죽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2세대가 등장하자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민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민 2세대들은 고등학교까지 평균 2번의 교회분열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험을 한 2세대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Silent exodus**’를 하는 것이 지금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신앙교육의 실패는 장차 이민교회가 다음세대가 아니라 다른세대를 보게 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주일예배 ‘수단과 목적’ (신11:18-25) - 성경에는 ‘If 하면, then 무엇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앞의 것은 수단이고, 뒤의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 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위해 순종이라는 수단을 행하는 식입니다. 노승환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집안의 장사를 도왔는데, 다행히 비즈니스가 잘되어 몇 년 후 부친께서 목사님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면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입장에서야 대학입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차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부친의 입장은 결코 차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친은 앞의 것, 즉 대학입학이 목적이고, 뒤의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복주심은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이용해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 닮기를 위해 애쓰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들은 신앙과 인격은 돌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성공과 일,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만 쫓아 바쁘게 살다가 뒤돌아보면서 ‘인생 다 그런거지. 뭐 별거있나’라며 자기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주님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구하라는 도전을 받았습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와서 2 - 전교인 수양회를 통한 은혜

정광근 장로

2023 년은 보스톤한인교회 70 주년입니다. 한 해 전부터 교회의 크고 작은 70 주년 기념행사가 준비되기 시작했고 그 일들을 하나둘씩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 하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어려움, 가까운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내적 자발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런 저런 사역들로 지쳐 있던 심신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총책임을 맡고 계시던 장로님을 돕고 허락하시면 해주는 밥을 먹으며 덤으로 심도 누리자는 생각으로 수양회를 등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인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적잖은 설교와 말씀으로 들어오던 이민교회에 대한 사랑이 주제라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더더욱 말씀에 대한 기대없이 뉴햄프셔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 저를 꾸짖기라도 하시 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뉴저지 찬양교회 노승환 목사님의 6 번의 말씀을 통해 이 믿음 없는 자를 겸손케 하시고 마치 로템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먹이시듯 영의 말씀과 육의 양식으로 이 죄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곳 미국 보스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고 이민자 가정의 부모들로서 2 세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스스로를 보게 되었고 왜 우리를 이민자들로 살게 하셨으며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노승환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키시고 힘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낸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에는 사랑과 하나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소중히 경청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예배 공동체에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부부가 그냥 이것 저것 다 귀찮아 수양회를 가지 않았다면... 우리 부부는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회복의 능력을 느끼고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족한 저희를 불러 수양회로 오르게 하시고 그 곳에서 넘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관리 위원회입니다.

첫번째, 우리 교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water fountain 설치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위치는 1층 복도,남자 화장실 입구에 설치 되었습니다. 정의 평화 환경 위원장이신 안성완 장로님의 지원과 격려 속에 설치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설치 공간이 좁아 여러번의 시행 착오가 있었습니다.안 될 것 같았던 반복되는 실패의 작업 끝에 기적처럼 좁은 공간에 딱 들어 맞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2 인치만 커도 벽을 허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수되고 시원하게 냉수되어 나오는 맑은 물을 드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교회 사무실에 bottle 로 설치된 음료대 대신 가급적 새로 설치한 water fountain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 정수기를 사용 하면 15,000명의 플라스틱 물병을 절약하고, 327 파운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며, \$3,750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작업에 지원금을 헌금 해주신 2022년 신임 제직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요즘 교회 스크린이 선명하게 바뀐 것을 인지하셨을겁니다. 예배 예술 위원회 박신영 장로님의 지원 속에 건물 관리위원회 소속 늙은 교회 오빠들의 순교의 각오로 진행시킨 대형TV 설치 프로젝트였습니다. 사고없이 잘 끝마친 것에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좋은 화질의 예배화면을 보여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양술 장로님, 이정규 장로님, 집사회장 배광현 집사님, 최학수 집사님 , 청년부 부지형 형제의 지원도 감사합니다.

세번째, 우리 교회의 천적인 쥐들의 출몰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그 동안 놀이터 바닥재를 뜯어내고 그 속에 들어가 생존하는 그들의 공간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틀어 막아 그들의 주거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아도 되겠습니다. 교우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나쁜 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행사 후 남은 음식 쓰레기를 가급적 집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쓰레기 수거장이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쥐들의 서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회 시설물과 쓰레기 관리를 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내집처럼 아끼고 사랑합시다.

Shalom! It will be one year anniversary of EM/BM worship service in October. Time flies with God's grace and blessings. We have a small group of 13-15 steady members; however, it is surely an important part of KCB worship.

As our church has been heavily emphasizing inter-generation worship and fellowship, the EM/BM service is one of perfect examples of this. Paul and Ariel are attending the service with their son, Nathaniel (1 year old). Paul is a son of Elders Joonho & Hanna Cho. When we have EM/BM service on any given Sundays, the three generations of Cho family worship at noon.



Starting in October, we are trying a new format of EM/BM service on Sundays in order to have more engagement and sharing their faith and fellowship among the members. We will have Bible discussion/fellowship time on the first & third Sundays of the month while we continue to have EM worship service on the second & fourth Sundays. On the fifth Sundays of the month (four times of year), we are planning to have a joint worship service with Ransom youth group. It would be a great option for high school seniors to join our EM service after they graduate from the youth group.



We would like to thank Pastor David Eunil Cho for providing preaching for most of Sundays. We also appreciate pastor John Sweet from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who gives sermon when Pastor David cannot preach.

More than anything, our EM/BM service group needs prayers and encouragement from our congregation. God bless you everyone-

KCB 정평환 위원회

책, 골프용품 나누기

10월 8일 주일 2부 예배후

책을 바꿔보며
골프 용품을 나누며
아름다운 우리의 가을을 소망해봅니다.



나누고 싶은 귀한 물건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문의: 조이남 집사 justjoy@empas.com

10월 8일 2부예배후에 있을 “책 바꿔봐요 & 골프용품 나눠요” 행사를 소개합니다.

팬데믹 기간중 중단되었던 책 바꿔보기 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는 책 바꿔보기와 더불어 골프 용품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더이상 필요없는 책들이 생기기도 하고, 골프에 한참 집중할 때 구입했던 골프용품들이 이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책들과 골프용품들이 애물단지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꽤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월 8일**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에서 **2부 예배후** “책 바꿔봐요 & 골프용품 나눠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에 읽지 않는 책들과 골프 용품을 10월 8일까지 교회로 가져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구 환경에 많은 분들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분들: 김경섭 집사, 양수연 집사, 조이남 집사, 진정원 집사, 안성완 장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9월부터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선플라워 사역을 맡게 된 박예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신학과 목회학을 공부한 이후 목사 안수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는 보스톤에서 난민과 이주민 정신 건강 그리고 정책에 초점을 두어 Social Work 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지만 새로운 컨텍스트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차분히 적응하는 중입니다. 2부 예배 때 영상으로 인사드렸듯이, 교육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알려진 메사추세츠 주에서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교회 ECC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와 관심어린 도움의 손길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플라워 또한 새학기를 맞이하여 유스그룹으로 올라가는 아이들과 인사하고 더불어 선플라워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이하나, 김정연, 채수경, 그리고 김태훈 선생님과 작별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별이 있다면 새로운 만남이 있듯이,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게 되는 아이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때의 필요를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조아영, 황수진, 장의선, 박한아, 김혜민, 그리고 최희주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등부 부감 그리고 유초등부 부장의 자리를 섬겨주실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셨으나 조금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후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사역의 핵심은 진심어린 사랑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희가 어린 시절 저희를 섬겨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받았던 사랑을 다시 다음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을 준수하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사역의 방향성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분들과 아이들 모두의 마음 속에 남는 것은 사랑과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토끼 왔어? 내가 우리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왔네!” 교회 할머니께서 저를 볼 때마다 해주셨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듣던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 아닌, 20살이 훌쩍 넘어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결혼을 하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른신의 시선 속 저는 처음 뵈었던 때인 제 어린아이의 시절 속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랑 받았던 기억들은 차곡차곡 제 안에 모아져서, 교회란 사랑을 주고 받는 곳이라는 생각이 형성되었습니다. 목사의 자녀로서 매순간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고 최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열의 모습 속에서 상처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게 교회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받는 법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도록 저희에게 허락해주신 소중한 한 가족이며, 함께 삶으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조부모님의 영적 유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사회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곧은 시선,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는 약자를 위한 돌봄과 연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제가 걸어가는 발걸음에도 새기며 걸어왔습니다. 시선을 더욱 넓히어 생각해볼 때, 그 옛날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낸 해외 여성교회의 기도와 눈물을 저는 증언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으로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선교적 유산을 이어 아시아를 위해 장학금 사업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국내외로 주최하는 선교재단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제 속도에 맞추어 제 삶을 이끌어가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일전에는 알지 못했을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 이끌리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학문을 하며 모국의 역사와 이야기를 갈망하던 저는 친할아버지쪽 가족들이 이민을 오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점차 제 마음이 이민자와 난민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민족이 타지에서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분들의 후손인 내가 다른 이방인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신학교 졸업 이후에 Social Work 라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낮은 자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제게는 선한 것이었음을 제 삶을 통해 여전히 여실히 경험하며 주어진 삶을 기도하며 기도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 길목에 있는 저는 이번에 보스톤한인교회 선플라워 사역을 맡게 된 박예원 전도사입니다.





유스그룹을 맡은 정은택 전도사입니다.

선플라워 교사로 섬기고, 청년 2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저를 교회에서 불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체육교육과 신학, 철학을 공부하였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필요한 공부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온 지는 이제 막 1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나 따스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교인 분들께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실 손길을 기대하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스 그룹을 향한 관심과 사랑, 무엇보다도 기도를 부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스그룹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6학년 아이들을 환영하는 인사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플라워에서 함께 섬겨주셨던 김태훈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다시 유스그룹으로 복귀하시는 안성민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9월 10일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1년 간의 계획과 조만간 다가올 여러 행사들의 일정 등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10월 8-9일 Lock-In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새로 올라온 6학년 아이들은 유스 그룹에 조금씩 애착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실컷 뛰어 놀고, 또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그룹 학생들은 앞으로 10-11월 동안 신앙의 기초,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등에 대해 조금씩 배워 나갈 것이고, 대림절 기간에는 교회력에 맞추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신앙을 가르치는 노력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s your father and a pastor, I am sorry that all I can do for you is nothing but praying.” My father told me this when I was lying in the military hospital for more than 6 months due to a disease called spondylitis. Having part-time jobs to break the link of poverty in my family while serv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significantly affected my health. Prolonged helplessness and physical pain led me to ask a question: “Why would God allow such suff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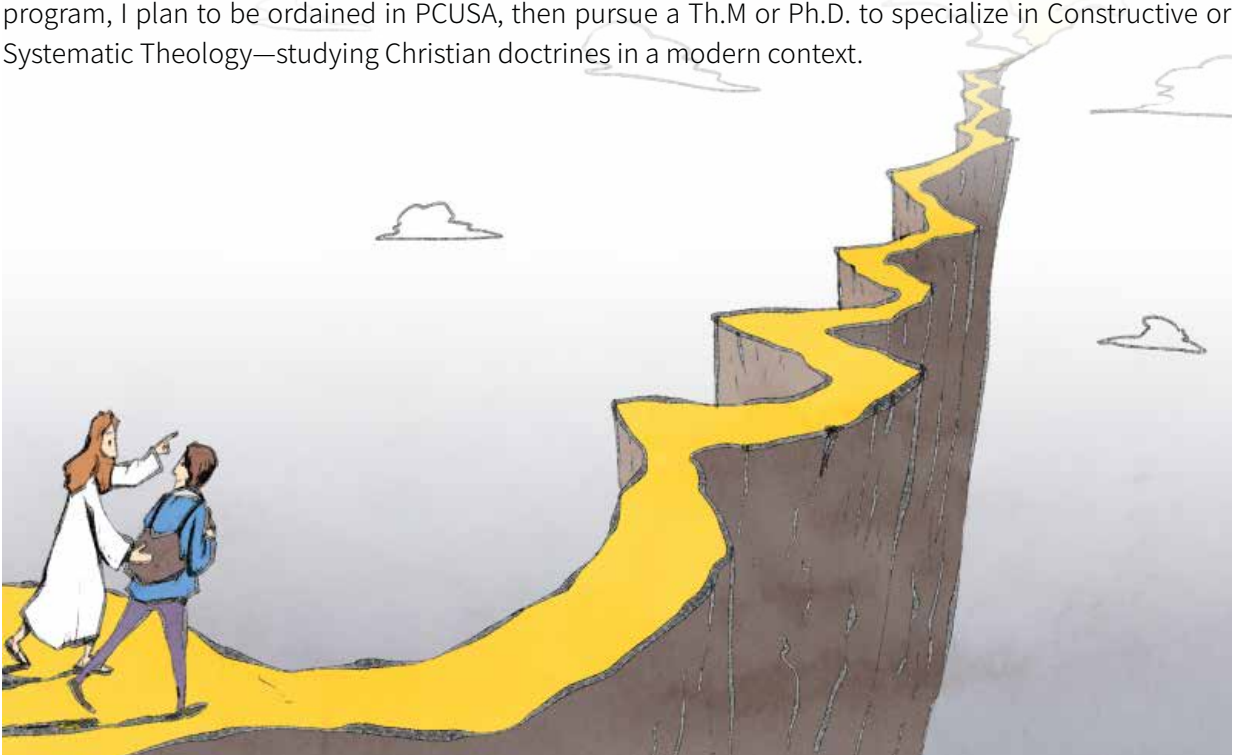
Growing up at a small and rural church in South Korea, I encountered the sorrows and pain of my family who served church members less than the number of Jesus’ disciples. Looking back at the dire situations we faced, I could only keep my head down to withstand the pain and shame I felt at that time, such as evac-

uation to other churches when a destructive typhoon destroyed my family home, which was attached to the church my father planted, long hospitalizations due to being forced to overwork, my younger brother’s sudden diagnosis with a rare disease, etc. All these incidents have taken a serious emotional toll on me, and I could not help but seriously doubt God’s ability and character, or even existence itself. Simply to survive from existential dread, I started studying theology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suffering. By pursuing theology, I hoped to recover spirituality and overcome the hardships by reconciling the discrepancy between the faith and the hope I held and the reality I faced everyday.

Before the decision to study theology, I did not fully understand what the gospel means and why it is so important in our lives. All I knew was merely limited to a few doctrines that I had learned in church; however, as I delved deeper and questioned the teachings of the Bible, I came to appreciate the profound hope offere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a hope that had unknowingly become the cornerstone of my life. This was not a sudden revelation but a gradual transformation. Over time, I realized that true joy and meaning in life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is Christo-centric hope—the resurrection of Jesus that overcame all wickedness and evil. Also, I recognized many Biblical figures had questioned why God allows suffering, as I asked. However, unlike me, they did not remain trapped in this ‘why’—instead, they stepped forward, appealing to God to overcome suffering and evil; finally, they proved their faith by believing in God’s righteousness. This realization was an eye-opening event for me, and it prompted me to join in their journey, the trail of Jesus’s followers.

Also, in my experiences of hardships, I encountered those who give themselves to suffering neighbors in solidarity despite being vulnerable themselves within the gospel. I gradually learned that those who know sadness can relate to others' pains and more effectively and sincerely encourage others to accept and overcome traumas. Therefore, with the realization above and meeting with the serious Jesus-followers, my theological inquiries slowly shifted from asking **why** the world is still full of suffering to **how** we might reveal God's will and empathy communally in the groaning world. Transitioning my focus from dealing with **individual concerns of faith to reinforcing spirituality communally** motivated me to passionately pursue the path of becoming a pastor and theologian; I became eager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revealing and conveying God's characters and messages to the people who do not know the gospel and building a community where people can share their faith. **Such spiritual guidance** led me to ultimately devote my life to delivering God's message and love to those in need.

Such a life journey drew my attention to Theology and philosophy as my second and third major at Yonsei University. Abandoning my initial dream of becoming an exercise physiologist was difficult but ultimately rewarding, as I found greater joy in studying God, the church, and humanity. Currently, I am part of the Master of Divinity program at Harvard Divinity School and serve at the Korean Church of Boston, a proud, intergenerational(three generations!) congregation of Koreans and Korean-Americans. Here, I am learning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in various cultural and ethnic contexts and how the church can shape people's identities, not only as Christians but also as Koreans. Upon completion of my M.Div program, I plan to be ordained in PCUSA, then pursue a Th.M or Ph.D. to specialize in Constructive or Systematic Theology—studying Christian doctrines in a modern context.



청년1부는 여름방학 동안 [민수기: 광야에서]와 [예배와 예전: 주님 앞에 서있네]를 주제로 금요집회와 주일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가을학기부터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동안에는 교회에서의 정기모임과 함께, 여러 야외모임을 함께 가지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새학기를 맞아서도 새신자 환영모임 겸 야외모임을 9월 24일(주일)에 청년1, 2부가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Apple Picking). 또한 9월 29일 금요일에는 연합으로 금요 찬양의 밤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 첫 주간부터는 ECC 채플에서 금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도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학기를 맞아, 청년1부 임원단에 새로운 리더를 충원하여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박현석(회장), 이효준(부회장), 민채이(총무), 권시윤(회계),
안성민(찬양팀장), 조영은(환영팀장), 김예나(이벤트팀장)**



청년 리더들이 주님 주시는 한마음으로 청년1부를 잘 섬기도록 따뜻한 기도와 격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0월 8일(주일) 청년부 헌신예배와 11월 10~12일(금~주일)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에서는 9월초 신.구임원 교체식을 갖고, 새 회장단과 임원진들이 섬김을 시작하였습니다. 새 임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장: 임주광, 부회장:김은총, 총무:천동혁, 서기:김지운, 회계:조성경,
새교우 환영팀장:백 현, 찬양팀장:이준석, 리더장:정윤원**

9월 16일에는 임원단 Workshop을 갖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올해 활동계획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귀음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꾀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청년부를 넘어 교회 부서들과 연합하여 out reach 프로그램도 가질 예정입니다. 9월 24일에는 청년 1부와 함께 apple picking 행사를 할 예정이며, 9월 29일(금)에는 금요일예배를 ‘찬양의 밤’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10월 8일에는 청년 1부와 함께 청년들의 헌신을 다지는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부청년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엡 2:19-22) 표어 아래 월 3회 이상 대면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8월부터 이요한 목사님께서 부부청년부 담당교역자로 오셔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한 주는 이요한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설교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사경회로, 다른 한 주는 형제자매 모임, 새가족 환영회, 베이비샤워, 조모임 등 교제를 통한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형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13일에는 3년 만에 진행된 부부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활활 타오르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벽까지 진행되었던 형제들간 자매들간의 나눔을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보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부청년부를 찾아 주신 황태환/황예림, 김영경 가정과 새가족 환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부청년부 여러 가정에 새생명을 허락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축복하는 베이비샤워도 있었습니다.



방수영/김지은 가정 (특남 방재준6/15), 장유진/왕희연 가정 (특남 장건우Theo 7/4), 전선/김현지 가정 (특남 전시우 Kayden 8/25)은 새생명을 출산하였고, 4분기에도 여러 가정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함께 기쁨을 나눌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님들이 자원하여 일찍부터 야유회 장소에 나와 불고기와 소세지를 grill에 굽고 준비하여, 전교인 분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섬김을 가졌습니다.

9월 3일 Larz Anderson Park에서 가진 전교인 야유회에서는 여러 부부청년부 형제

마지막으로 10월 29일에는 부부청년부 헌신 예배와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청년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 번 기억하며 감격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24년도를 이끌어갈 부부청년부의 leader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부청년부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옴 반 그리고 설레임 반으로 줌으로 만난 그 당시 구역장이셨던 정현아 집사님께서도 두 팔 벌려 우리 가정을 환영해 주셨다.

교회에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 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처럼 첫 줌 모임부터 진심으로 반겨 주셨고, 특히 팬데믹 기간 어른들이 줌으로 구역 모임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도 줌으로 서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온라인으로 게임도 하니, 조은이도 구역모임이 언제 있냐며 계속 물어보곤 했다.

같은 교회에서 그리고 같은 구역에서 같은 말씀을 보고, 여러 생각들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힘들 때는 힘써 같이 기도해 주시는 구역분들이 긴 팬데믹의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다.

대면 모임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여 식사 교제도 하기 시작할 때 구역분들에게 아무 것이나 먹일 수 없다며, 손수 차이나타운 근처까지 가서서 피자를 픽업해 오시고, 알스턴에서 떡볶이를 공수해 오시던 이지용 구역장님의 헌신은 큰 도전이었다. 그리고 구역원 모두가 주일학교, 유년부, 방송실, 찬양대, 안내위원 등등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교회와 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듬뿍 느끼며 믿음의 선배이자 동료인 구역분들과 함께 하는 매 순간이 은혜로 다가옴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겨울, 2대 1의 치열한 경쟁률과 비밀이 보장된 듯 보장되지 않은 투표에 좀 더 한가해 보인다는 이유로 구역장이라는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 중서3 구역 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구역에서 수고와 헌신하시는 구역장님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주위에서 도와 주시는 많은 구역 분들을 믿고 이 직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올 초에 네 가정이나 새롭게 구역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분들도 우리 가정이 중서3구역에 정착하고 받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구역에 잘 뿌리 내리셨으면 했지만, 아직 몇 가정은 나의 기도와 헌신이 더 필요한 듯 하기도 하다.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체들. 아마 중서 3구역을 말하는게 아닐까?

이 가을 또 바람이 분다가 아니라 구역 분들과 함께 빨리 사과나 따라 가야겠다.

힘든 팬데믹 기간 우리 가정을 잘 붙들고 갈 수 있던 큰 기둥 중 하나는 한 주도 끊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 긴 터널을 지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였지만, 구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 가정에 성도간의 교제라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우리 고민을 예배 후 채수경 집사님에게 털어 놓자,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중서 3구역으로 오시면 어때요?” 라고 말씀 해 주셨고, 두려



칭찬합니다~~

마리아 여성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소은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이소은 집사님은 항상 함께 일할 일꾼을 잘 찾아서 그에게 맞는 일을 잘 맡기고 함께 합니다. 본인도 좋은 일꾼이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격려해서 함께 일을 만들어 갑니다. 오랜만에 부활한 세계기도회도 각 사람의 장점을 잘 파악해서 연락을 주고 퍼즐을 맞추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그로 인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은 집사님은 불평을 하지않고 항상 유머가 넘치십니다. 이번 수양회에 가서 10통의 수박을 매 집회가 끝날 때 마다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서빙하는데 웃으면서 일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신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마리아 회의가 정말 길어지고 갑론을박이 깊어져가도 각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이해하고 회의 분위기를 끝까지 화목하게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일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1부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풍성하게 친교 할 수 있도록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 마리아 여성회 모든 집사님들도 이 기회를 빌어 함께 칭찬합니다.



(이석원 /이소은 집사 부부)

<편집자 주> '칭찬합니다' 코너는 교회 곳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교우님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코너로 칭찬하시는 분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리아 소식입니다.

보스턴에서는 참 만나기 힘든 후덥지근한 날씨를 맛보았던 여름을 뒤로하고 갑자기 늦가을 날씨처럼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가을이 왔습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고국방문을 미뤘었던 많은 교인분들이 이번 여름에는 한국을 많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2부 다과를 늘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던 에스더 여성회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에스더 회원분들의 한국 나들이로 2부 다과준비에 차질을 빚을까 고민하던 끝에 마리아 여성회 언니들이 7,8월 1,2부 다과 준비를 모두 맡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각 부서의 일이 편의상 나눠져 있는 것이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는 주님안에 하나된 보스턴한인교회 여성회 언니와 동생들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다과봉사에 임했습니다. 이로써 에스더 여성회 동생들의 어려움과 헌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여름이었습니다.



5년만에 다시 재개된 이번 여름 전교인 수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네요. 오랜만에 열리는 수양회에 은혜받을 준비가 완벽히 된 우리 성도님들께 마리아 여성회는 시원한 수박을 준비했었습니다. 매 집회가 끝나고 조별모임 전에 준비하여 목 좀 축이고 서로 담소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이기도 한 추수감사절에는 맛있는 떡으로 대접하며 섬기려합니다. 우리 마리아 여성회 임원들과 회원님들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일에 보스톤한인교회 전교인이 모여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파아란 하늘 아래 라즈앤더슨 파크(Larz Anderson Park)에서 120명이 둘러앉아 불고기와 소세지 바베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후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손발에 땀띠가 나도록 줄넘기 게임을 즐겼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어 폭넓게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참가자들의 열의 뿐만 아니라 관객까지 신명나게 했던 이주원 집사의 맛깔난 진행이 숨은 조력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도 초집중하게 하는 빙고게임의 인기는 올해도 식을줄 몰랐습니다. 초록이 한껏 내려앉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문턱에서 모처럼 마음이 쉬어가는 야유회였습니다. '전교인 야유회'를 위해 부지런히 손을 보태주신 집사회 임원과 부청식구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보스톤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난 여름 보스톤에서 여러 교우들과 담임목사님을 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보여주신 환대와 격려에 특히 한장로님 내외분의 헌신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희들은 여름을 맞아 남가주 파사데나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LA 인근인 여기도 렌트비가 높은 곳입니다.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약 80여전 파사데나장로교회의 사업가셨던 갬블 장로님이 미션홈을 기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교단의 세계선교가 얼마나 길고 활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50회의 졸업식을 올린 카이로장로교신학교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in Cairo)와 그곳에 저희 같은 선교사-선생들을 160년이 넘게 보내고 있는 미장로교 선교부의 지속적인 헌신은 우리교단이 이슬람권의 전략적 선교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가 이 선교의 역사에 동참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이집트와 신학교의 상황을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로 미국 달러에 대비한 이집트 파운드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약 95%에 달하는 가난한 이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먹거리를 뺀 대다수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물가가 두 배로 뛴다는 것은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 사태는 코로나 사태 후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동유럽인들이 오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 생산(GDP)의 25%가 관광업인 이집트에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전쟁 후 석유와 밀의 값이 올라 이를 수입하는 이집트에겐 고통을 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디폴트에 빠지게 했고 이집트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부담이 이집트의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신학교의 총장과 부총장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며 미국과 영국의 선교기관으로 옮겨감을 통보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고 또 이집트인 교수들의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한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적을 수는 없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내 장학금으로 공부시키면 돌아와 몇 년만에 교수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교 교수를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외국에서 생활했던 이가 다시 카이로에 돌아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같은 외국인 선생님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끔은 이 아이러니를 어찌 이해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래서 저희 같은 부족한 이들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총장 사임 후 신학교와 교단 내 이런저런 밀당과 타협 후 카이로신학교에서 30년 이상 가르친 이집트인 교수가 새총장으로 인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교에서는 마이너리티 목소리였지만 장래 목사가 될 이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고 또 카이로신학교와 이집트 장로교회가 중동/북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4년 신학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도 “Samuel Rozfy Ibrahim” 총장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카이로에서 가르친지 8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네 해마다 이뤄지는 renewal process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랍어권에 있는 신학교에 무슨 뜻이 있어 갔는가 질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졸업생들의 몹시 열악한 목회 현장을 방문하면 왜 저희들의 경험과 배움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저런 환경에서 때론 혹독하게 훈련받은 일들이 우리 학생들의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평안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선교동역자 신에스더, 박노아 올림

안녕하세요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올해 북반부의 세계는 연일 폭염과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식이 부쩍 많네요. 저희가 머무는 남반부 칠레는 올 겨울 평균 강수량을 웃도는 비가 내리고 예전보다 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겨울이면 모든 사역자들이 기관지염을 끼고 사는데 올해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보수 공사 덕분에 훨씬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문턱에서 저희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황신재/정승신 선교사 부부- 막내 아들 결혼식때 찍은 사진입니다)

올 한해는 다양한 사역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대학가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당해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을 뿐더러 학생들의 모임도 이전처럼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일대일로 만나거나 대학 밖에서 학생들을 만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집을 주신 것도 바로 이를 위한 예비하심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사역

칠레 인구 2천만의 1/3인 약 7백만명이 수도인 산티아고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그 중 1백3십만의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산티아고로 몰려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임대사업은 대학가의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저희도 방들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을 호스트하고 이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복음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학기에는 노르웨이, 에콰도르, 하이티에서 온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칠레의 각 지역에서 7명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예배 모임과 일대일 상담 그리고 주말을 이용한 강의와 다양한 야외활동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기숙사 사역은 24시간 돌봄과 지킴의 사역이라 사역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육체적, 영적, 관계적인 모든 면에서 은혜로운 돌봄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의 삶가운데 잘 스며들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훈련사역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일명 예수제자훈련학교)는 제가 속한 YWAM 선교단의 시그너처 훈련과정입니다. 12주간의 강의와 8주이상의 국내외 선교체험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이 과정을 대학생들의 학업과 일정에 맞춰 몇 가지 모듈로 변형한 훈련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들을 이용한 강의 기간과 방학 기간중 선교체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명의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겨울 방학 동안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파벨라 (할렘가)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대학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보람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영역의 침투와 연계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음적인 영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사역은 정치, 교육, 비지니스, 예술, 의료, 기술, 농경등 다양한 사회의 영역에 진출했고 목회자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한편 훈련을 받고 13개국에 전문인 선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두번째 학기 훈련이 9월 중에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참가자들과 강사진들 그리고 스테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운 훈련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Vastago 초등학교 사역

새학기가 되면서 40여명의 학생들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캐나다에 캘거리에 있는 Christian Academy 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 영어캠프를 열어 주었습니다. 약 2주간의 수업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간 학생들이 재정을 보내와 그동안 숙원이던 도서관의 신양서적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사가 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료로 교사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월급이 약 3십만 칠레페소입니다 (미화 약 4백불) 이 급료는 일반 교사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납니다. 감사하게도 또 다른 교사들의 지원으로 교사들의 자리는 채워졌지만 재정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제목 - 교사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반수준까지 올릴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Chile Para Cristo (칠레를 그리스도께로)

저희 사역은 매년 칠레의 한 지역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칠레의 남쪽 섬 칠로에 (Chiloe)섬을 두달간 섬기기로 했습니다.

칠레의 10번 지역 (Region X) 인 Chiloe 섬은 10개의 지역에 2만3천 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수로는 약 1십 7만 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저희는 내년 3월과 4월 동안 칠로에 섬에 있는 교회들과 연계하여 모든 가정에 성경을 배부하는 일과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훈련 그리고 다양한 성경적 돌봄으로 칠로에 섬을 섬기게 됩니다.

기도제목 - 모든 가정에 성경을 배부하기 위해 약 2만권의 성경책이 필요하고 칠로에 섬 목회자 연합회와의 관계가 은혜롭게 이뤄지도록. (특히 Chiloe섬은 칠레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분열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칠레의 17개 선교베이스와 7개 대학사역단체들과 연계하여 사역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식월을 갖습니다

저는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제 아내가 있는 위스칸신으로 복귀합니다. 그동안 아내의 건강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잘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상태가 다시 힘들어 졌습니다. 수술한 갑상선의 다른 한쪽에서 혹이 자라고 있고 코로나 감염과 맹장 수술 이후 최근에는 심한 이석증 (Vertigo)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모두 일을 하기에 아내를 돌봄에 한계가 있고 계속 떨어져서 상황을 걱정하고만 있기보다 옆에서 아내를 돌보고 저 또한 지난 해 말 경험했던 심장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자는 주치의의 제안을 받아 드리로 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산재해 있고 제한된 인원의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일임하기에 큰 부담이 따르지만 모든 지체들의 동의와 축복 속에 안식월을 갖기로 했습니다. 현재로는 올해 말까지 미국 위스칸신주 메디슨시에 머물게 됩니다.

기도제목 -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고 오는 사역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에필로그

제가 애칭하는 일본영화 “7인의 사무라이”는 외적들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는 7명의 무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무사들은 모두 패잔병들입니다. 한번도 싸움에 이겨본 적이 없고 삶에서 실패만 거듭한 무사들이 어떻게 마을을 지켜 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같이 모두가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패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 최후에 승리를 이끌어내는 다이네믹이 훌륭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저의 나이 올해로 60입니다. 선교사역에 삶을 드린 30대 중반부터 약 26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육체는 30대 청년의 때와는 견줄 수 없고 기억의 대부분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스페인어로 은혜는 “Gracia” 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수형인 “Gracias”는 감사를 뜻합니다. 즉 감사는 많은 은혜들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지금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감정은 사역과 아내와 저의 건강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평안하고 확실합니다. 이때까지의 솔한 경험중 한번도 저희들이 따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과분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7인의 사무리이처럼 제 인생의 솔한 후회적인 실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남은 인생의 하반기 구간도 잘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24)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과테말라 김도연 선교사와의 만남

김영돈 집사 (해외선교위원회 총무겸 회계)

9월 20일 저녁 zoom을 통해 이루어진 과테말라 김도연 선교사님과의 미팅 중에 노트한 과테말라 선교 현황 요약입니다. 대략 총 12가지 사역을 하고계십니다.

학교 사역

- 전체 학생이 500명 정도, 교사는 20명 정도
- 학교 space가 꽉 차고, 학교 자립도가 80% 정도 됨
- 나머지는 헌금등으로 충당. 재정적으로 안정적임
- 인근에 사립으로 tuition을 받는 학교가 많지 않음
- 팬데믹 동안에 2부 수업 - 월화수 / 목금으로 나누었다가 올 초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
- 오전에 모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복음을 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배부터 드리고, 성경을 30분씩 쓰는 시간을 갖음
- Retreat을 시작과 끝에 하게 됨.
- 11월 3째주에 졸업을 하게 됨. 123명 정도 졸업할 예정
- 대학에 가게 되면 tuition의 반을 지원하고 있음
- 졸업생들이 시청이나 가게 등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어린이 사역

- 어린이 교회를 4군데를 지었음 (어린이/청소년 예배만)
- 청소년 예배 오후 1시, 6군데의 다른 어린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끔 함
- 어린이 교회 전체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됨
- 전체 학생의 1/3이 장학생임 (full scholarship)
- 선생님 커플 졸업생 4쌍이 어린이 교회 선생으로 사역 중

결혼 사역

- 팬데믹 동안 못했으나 올해 5쌍이 신청해서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교육

건설 사역

- 분위기가 많이 바뀐 편임
- 교회당/ 도로 건설 (최근에 조금 진행된 편임)

공동 사역

- 올해 7개 교회가 단기 선교를 다녀갔음
-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중임

여성 사역



나눔 사역

- 옥수수 나눔이 어려워짐. 옥수수 가격이 200% 올랐음 (기름으로 사용됨)
- 주로 교회 어린이들에게 나눠 주고 있음
- 가축 나눔 사역
- 가축 나눔 사역은 못하고 있음, 옥수수 사역으로 전환
- 가축 농장은 선생님 숙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였음

기타 현황

- 과테말라 선교사 30% 정도가 close했었음. 그러나 오히려 부흥되어 너무 감사함
- 현지 법인은 후배 목사님께 넘겼음 (김도연 목사님께서서는 매우 건강하심)
- 젊은 선교사님 (이종균 선교사님) 께서 추후 맡게되실 예정
- 20명 정도로, 이사님들도 많이 조인하였음

과테말라 현지 COVID 현황

- 목사님 동료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좀 있음
- 백신이 한동안 없었어서 못 맞았는데 지금은 공짜로 놔주고 있음
- 개인적으로 보건원에 가서 맞게 되어있음
- 금년 4-5월부터 안정화되었음
- Sanitizer를 교실마다 비치하고 있음

권사회

회장 김동숙 권사

간장되었던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우리모두에게 가을이라는 초대장을 내밀고 있네요. 어제까지 더웠는데 말이죠.. 이번 여름, 저희들이 사는 보스턴 지역은 여러가지의 재난에도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우리 권사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함없이 주신 이 계절, 가을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자태들을 한껏 누릴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에 깊은 감사드림과 동시에 아픔과 고통속에서 견디며 힘든 여름을 보냈을 다른 지역, 곳곳들의 아픔에 위로 또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피 주옵소서.

지난 여름 동안 권사회 활동 상황 및 변동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활동 상황:

6월 26일 - 상록회 식사 대접

7월 - 권사회 임시총회

8월 - 권사회 임원회의

9월 10일 - 청년 1,2부 점심 제공 (권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 변동 사항:

새임원 - 총무: 김경희 권사님 (권사회 총무직을 수락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권사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3월 상록기도회 모임에서 홍유탉 성도님께서 “노인건강관리” 특강을 했고, 식사제공은 윤산만 회원님의 따님되시는 김미경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5월6일 집사회 주관 봄청소 할 때 상록기도회에서 잡채를 제공하였고 르호봇 연못 주변 화단에 꽃심기 봉사를 했습니다.

5월21일 “한가족예술제”에는 상록회 회원 16명 참가하여 “어버이 우산상”을 받았습니다.

6월모임은 김화옥 집사님께서 “한국 어제와 오늘, 광화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셨고, 이 날 식사제공은 권사회에서 해주셨습니다.

7월16일 주일은 상록기도회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7월모임의 식사제공은 집사회에서 해주셨습니다.

8월 전교인 여름수양회에는 총 1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세대들과의 만남과 소통이 즐겁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9월 17일 신임 제직 임직식이 있던 날, 상록회 회원이신 주풍실 권사님이 신임 권사로 임직되시어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9월 모임에는 김미경 집사님께서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관리”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식사제공은 안성완 장로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남선교회가 주최하여 기금마련을 하는 장학금 모임에 동참하고자 상록기도회에서 \$500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장회는 2022년 2월 9일에 9명 (권복태, 김문소, 김성빈, 김형범, 박영철, 조준호, 홍경자 여러장로들과 이영길 목사, 윤경문 목사)이 참석하여 줌으로 첫 모임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 목사님은 보스톤한인교회의 중요 연혁 강조로 (고) 백린 장로님이 언급한 세가지 즉 1.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2. PC(USA) 교단 가입, 3. 교회이며, 우리 모임이 할 기도 제목으로는 (1) 환우들 위해 (2) 교회의 미래를 위해 (3) 한인 2세, 3세, 4세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간 결정해 시행되는 몇가지사항은

1. 매월 정기 기도모임은 매월 둘째 수요일 저녁 7시에Zoom으로 한시간 내에 하며.
2. 교우들을 위한 기도와 문안 전화 및 미래의 주역인 2, 3, 4세대들 위한 중보 기도하고,
3. 문안 전화 중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목회자에게 알려서 해결토록 한다.
4. 매달 기도와 간증은 회원의 가나다 순으로, 사회는 연령 순으로 3개월 간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환우와 후세들과 목회자들 및 교회 70주년 행사 뿐만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내 총기 사고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해왔습니다.

이번 9월의 모임은 그 동안 여름철 휴가로 2달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가을 시작 즈음에 다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회원으로 윤원길 장로님이 은.장.회. 회원으로 join을 했고, 6명의 회원이 줌으로 참석해 그 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또 교회의 환우들의 경과를 나눔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매월 모임 때 마다 회원들이 돌아가며 갖는 “이야기 나눔”은 9월에는 김형범 장로님이 Verdi 의 오페라 나부코 (Nabucco) 줄거리를, 특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란 곡의 가사를 일일이 읽으며 감상하였습니다. 특별히 광복 50주년에 정명훈이 지휘한 것이 아주 좋았고, 우리도 후손에게 Korean-American의 정체성을 꼭 알려줘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올해 ‘감사’의 주제를 갖고 맞고 있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나누고자 한국 문화 축제를 11월 4일(토) 개최합니다.

본 교회의 비전 선언 중 하나인,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란 비전을 펼치며,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부르클라인 주민들과 하나님께서 본 교회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축제가 되길 바라며 “Sharing gratitude with our neighbors”라는 주제로 준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문화 축제 기획을 위해 배광현 집사님과 7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문수 장로님, 부위원장 김대식 집사님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발족되어 첫 모임을 가졌고, 교회 부서들의 협력을 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 전통춤, 클래식 연주, K-Pop, 한복입기 체험 등)을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한국 문화 축제 준비 (홍보, 프로그램, 음식 분야)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배광현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Korean Cultural Festival 2023

Sharing Gratitude with Our Neighbors

When : Saturday, Nov. 4 2023
Part 1 @5pm : K - Cultural Experience (Food, Music, Custom and Etc.)
Part 2 @7pm : K - Cultural Performance

Where :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감사(Gam-Sa) : Gratitude

보스톤 한인교회
Boston Korean Church of Boston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21)



오랜 시간을 매주 뵈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보스톤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미 잘 알고 있는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글로 쓴다는 것이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2006년의 기억을 소환해 봅니다.

그 해 뉴욕 JFK공항에서부터 우리 가족의 chapter II 인 새로운 미국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출발한 나와 중학교 2학년이었던 큰 아이가 뉴욕에 도착하여, 보스톤에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음료수를 한 손에 들고 공항 밖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큰 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본인이 원하여 오는 길이지만, 아마도 호기심과 두려움 등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 보이던 얼굴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나의 삶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나, 아이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나의 생각을 차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잘 해내겠지!’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큰 아들은 본인보다도 아빠를 더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미국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후 집사람과 둘째아이가 미국에 와서 함께하여 온전한 우리 가족 Bang Family를 이루고 가족 완전체로 보스톤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와 아내도 새로운 일과 환경에서의 시작이었지만, 우리 두 아들들도 낯선 학교 생활과 친구들과의 시간이 시작되며, 우리 4가족은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고, 보스톤한인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어느덧 독립된 각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아빠와 굵은 목소리로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며, 거리를 두는 아들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각자의 펼쳐질 삶에 대한 고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큰 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스럽고 예쁜 반쪽을 만나 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보배롭고 귀한 선물, 서준과 재준이가 저희들에게 와서 감사하게 저희 가족은 지금은 말 그대로 3세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 김향인 집사, 큰아들 부부 (방수영, 김지은 집사) 손자들 (방서준, 방재준), 그리고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둘째 아들 (방채원). 현재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7명이 소중하고 감사한 3세대 가족 신앙공동체를 보스턴에서 이루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한 순간들을 김향인 집사와 함께 나누며,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함 속에 가끔 “너에게도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작은 귓속말로 ”너에게도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계획이 있었던다 사랑하는 아들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3세대 가족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인동정 나의 보스턴 1년생활을 마무리하며

김성재 집사



저는 작년 9월 27일 1년 visiting scholar로 보스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에 근무중인데, 회사 내에 연구전문가라는 트랙이 있고 해마다 인원을 뽑아 교육 시키는 과정 중에 1년간 해외대학이나 해외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어도 미숙하고 회사에서 핵심 인력이 아닌 제가 이렇게 뽑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스턴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저보다 먼저 뽑힌 회사 동료가 있는데 MIT를 생각하고 있고 분야도 시라고 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MIT의 경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돈을 싸들고 오는 곳이라 처음에는 아무도 저의 이메일에 회신이 없었습니다. 낙담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의 PI로부터 회신이 왔고 알고보니 제게 딱맞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PI도 자신의 연구를 자동차 분야에 적용하고자하는 니즈가 있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스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기전부터 1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없이 혼자 보스턴에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18살, 16살 두 아들을 아내가 보살펴야 했는데 어려운 시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1년을 보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외국생활을 한 적 없는 저에게 모든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물론 처음 회사지원으로 현지 코디분이 집도 구해주시고, 체크통장도 만들어 주시고 생활살림도 마련해 주셨기때문에 덜 힘들었지만 같이 오기로한 책임님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3개월을 혼자 지내야했는데 이 기간 긴긴 겨울까지 겹치면서 홀로 외로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한인교회를 빨리 출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





오기 전에 기도한 것은 주일을 지킬수 있도록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다시금 신앙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다). 지금의 교회를 정하기 전에 2곳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었고, 세번째 지금의 보스톤한인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정광근 장로님과 사모님,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수준 높은 찬양대, 목사님의 수준 높은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절친인 선교사 친구가 꼭 PCUSA 로 출석하라고 했는데 보스톤한인교회가 그 조건에 맞

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예배에 등록을 하고 중서 3구역과 성경공부 바울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중서 3구역 강종균 집사님이 저의 대학교 후배이자 제가 기숙사총장을 할때 신입생으로 같은층에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카톡사진을 보고 저를 기억하고 연락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경 집사님이 첫 만남부터 챙겨주시고 중서 3구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바울반 모임은 주일예배 시간인 만큼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는 정하균 집사님, 중심을 잡아주시는 김문소 장로님, 남다른 성경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색다른 인사이트를 주시는 이재익 집사님, 멀리 중국에서 줌으로 참석하시는 이태호 집사님 등, 자칫 1년 짧게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 주변인으로 예배만 드리다가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환대와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이제는 한국 가면 너무 보고 싶은 분들이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식사모임에서 알게된 고희 출신의 장양술 장로님은 동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사실 보스톤에서 고희사투리를 듣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하니 1년이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는 보스톤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큰 주제는 저와 상관은 없었지만 각각의 강의와 말씀은 저의 인간적인 욕심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한국에 돌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수련회는 대학교 이후에 첫 참석이었는데 옛날 대학시절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나누고 울고 웃고 함께 생활하며 찬양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셔도 내년수련회를 참석하러올까 고민할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온화하고 나이스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유독 무서운 아빠,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큰 아들의 사춘기시절 상황은 최악이었고 손찌검을 하고 화가나서 방문을 쳐서 구멍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책 '문제야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를 읽고 저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아로만 보였던 자녀의 모습에서 저의 죄를 보게되고 오히려 저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자녀 우상을 인정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나빠진 상황은 저의 바람처럼 빨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년간 제가 집을 비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큰아들과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저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느끼게 하였고, 넓은 세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녀들을 대했는지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서는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김문소 장로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선포하고자합니다. "You are my hero" 자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테지만 저의 연약함도 쓰실 하나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봅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1년간의 추억에 함께 해주신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옛 교우동정: 뉴저지에서 보내 온 소식

김학주 집사

안녕하세요, 보스톤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실까요? 저희 가정은 지난해 뉴저지로 이사를 온 뒤 새 생명의 축복과 함께 군 훈련과 학업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간호사로서의 직장생활과 자녀 돌봄 섬김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최근에 한 살이 된 김지아 양도 이제는 차이를 여러 개 갖고 있어서 꽤 단단한 음식도 잘 먹고, 무릎보호대를 한 작은 두 다리로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며 본인의 일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도 문득문득 윗동네가 생각나는 것은, 보스톤한인교회에서의 따뜻했던 추억 덕분이겠지요. 부부청년부의 시골벽적한 점심, 2부 예배 전의 방송실과 통역 데스크의 잔잔한 기운, 그리고 때마다 있었던 찬양팀의 연습 시간 및 식사 교제 등, 꺼내어 곱씹어 보면 곱씹을수록 미소가 번지는 좋은 추억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속성이 그렇듯, 기억이 조금씩 열어져 갑니다. (돌봄의 책임이 있는 자녀가 생긴 뒤로 많은 것들이 뒷순위로 밀려나네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아낌없이 반짝였던 시간이 조금씩 열어져 가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볼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보는 그때 창조주 되신 분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한 이야기보따리를 마음껏 나눌 수 있으므로 그리워하면서도 씩씩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너무 익숙해서 꽤 자주 잊고지냈던 진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꿈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김학주 강다애 김지아 올림

추신: 가수 윤하의 곡인 '사건의 지평선'을 추천합니다.



편집후기

항상 생각한다. ‘실릴 글이 없으면 한울타리 안 만들어도 되는데...’ 라고.. 허나 오지게 일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그리 쉬게 안 하실걸 알기에 기대도 안한다. ππ 이번 호도 많은 분들의 글을 읽으며 혼자 눈물 찢끔거리다가 파안대소로 맞장구치다가 은혜받고 회개하고.. 복치고 장구치고 하다보면 동이 터온다.. 또 날 밤 샌거...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밤새도록 은혜를 곱씹게 만든 한울타리안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모든 교우님들 에게도 진심을 다해 달려가 안기게 되기를 소망해본다. 여러분~~ 한울타리 겨울호 원고청탁 곧 들어갑니다~ 기대 하세요~~ (편집짱 헤덜리)

마지막 편집자 후기 헤덜리 장로님 말씀에 완전 공감하며.. 1차 교정 마치고 유미 집사님께 넘깁니다. ‘또 날밤 샌거..’ 해피 토요일 무사히 마치고 홀리 주일 넘겼어요. 진짜 숨가쁘게 월화수목금토일 살면서도 잘 시간은 꼭 지켰었습니다. 왜? 안그러면 진짜 쓰러질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고를 읽는 이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이 이렇게 말뚱말뚱하기 있기 없지요? 이젠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모든 분들께 샬롬^^ (1차 교정 편집위원 “텍사스는 오늘도 금요일”)

한울타리안 ‘이야기’ 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님과 한발짝 더 가까워지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2차 교정 편집위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둥근 해’ 를 만난 J”)

교회 소식을 온 교우와 나누는 한울타리 소식지, 날이 갈수록 알찬 내용에 신선함과 감동이 더해가네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홍보위원회 한울타리 팀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뭐든 다 되는 편집위원 윤경문 목사)

예전에 교회에 모여 작업할 때는 밤 12시만은 넘기지 말자, 신데렐라(우리 팀원들)가 밤 12시 종치면 거지같이 너덜해지고 자동차도 호박으로 변한다고... 헌데 지금은 집에서 밤샘하며 작업을 한다고라? 뉴 테크놀러지로 거지 신데렐라나 호박으로 변할리 없는 편리함의 노동.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고픈 밤. (올해는 그림자 편집위원 “여전히 신데렐라”)

교회 행사 및 모임 안내

- 10월 1일(주일): 세계 성찬 주일/정의 평화 환경 주일
- 10월 8일 (주일): 청년 1, 2부 헌신예배
정.평.환 주최 “책 바꿔봐요 & 골프용품 나눠요”
- 10월 29일(주일): 부부청년부 헌신예배
- 11월 4일(토): 한국 문화 축제
- 11월 12일(주일):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탁구 대회
- 11월 10-12일 (금-주일): 청년 1부 수련회
- 11월 19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창립 70주년 기념 주일
- 11월 25일 (토): 웨마의 밤- 6시 저녁식사, 7시 웨마의 밤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당목사: 이 영 길